



## 충남 학교 건물 내진설계 · 보강 매우 취약

2122개 내진 대상 중 내진 설계난 보강 577개에 불과... 부여 · 홍성 · 청양지역 학교 매우 취약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전 국민이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내 학교 건물이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6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122개 내진대상 가운데 내진설계나 보강이 이뤄진 건물은 577(27.2%)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 건물은 ▲초등학교 1047동 중 276동(27.4%) ▲중학교 444동 중 124동(27%) ▲고등학교 631동 가운데 177동(28%)에 불과했다. 지역별 학교 내진보강 완료율은 아산지역 학교가 183동 가운데 81동(44.3%)을 마쳐 내진보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천안(37.3%), 당진(34.6%), 태안(33.3%)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여지역의 경우 내진 설계가 완료된 학교는 10.6%에 불과했고, 홍성(16.5%), 청양(18.3%), 예산(21%) 순으로 내진 보강에 열었다. 김 의원은 "농어촌지역일수록 내진완료율이 저조한 것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학교 내진 대상은 교실과 기숙사, 급식실 등 5곳으로, 충남에는 3804동의 학교 건물 가운데 55.8%가 진도 6.5 지진에 대비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진대상의 설계와 보강을 모두 마치려면 2030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부족하기에 충남지역 초·중·고 내진보강 비용은 2270억원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투자는 347억원이 고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건물은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만큼 대책 없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참사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교육부가 추정하는 2034년보다 4년이 앞당긴 것으로 최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지역별 완료율이 차이 나는 것은 시설학 교가 많고 적음의 문제로 지역별 차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정복 기자

### 올해 김장비용 인정세 지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월 중순 중 · 북부지방 김장철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지난 15일 김장재료 구입비용(4인 가족, 배추 2포기 기준)을 2차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T가 전국 19개지역 전통시장 18개와 대형유통업체 27개소를 대상으로 김장관련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15일 현재 전통시장은 22만8531원, 대형유통업체는 24만3139원으로 전주(8일/수) 대비 각각 1.5%, 2.5%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 김장주재료인 배추는 20포기 기준 전통시장은 5만6144원으로 지난해(5만5977원)보다 0.3% 오른 반면, 대형유통업체는 4만423원으로 전주와 비슷한 가격을 보였다.

특히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호전으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무와 쪽파는 지속 내림세를 보인 반면, 지난 여름 폭염과 잦은 우천으로 작황이 좋지 못한 고춧가루와 생강의 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송병배 기자

### 포항지진 관·학·연 합동 발생 원인 현장조사 착수

기상청은 포항 지진(규모 5.4)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앙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 관측망 외에 40곳(기상청 9곳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6곳 · 부산대 2곳 · 서울대와 경북대 20곳)에 이동식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해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관측할 계획이다.

이는 규모 2.0이하의 미소지진 관측과 지진활동 정밀 분석을 통해 입체적 지진분포도를 작성하고 지하 단층구조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지진과 분석을 통해 지진을 일으킨 단층의 형태, 움직임 방향을 분석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일본 니가타 지진 당시에도 지진 분포를 이용해 지하 단층 구조를 추정해 바 있다. 또 기상청은 지진특화연구센터로 지정된 경북대와 공동으로 진앙 주변에 대한 중력 및 자력 분석과 지진을 조사하고 위성자료를 이용한 지표변위 분석과 지진피해에 근거한 진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로 얻어진 여진의 정밀 분석과 통합 분석을 통해 이번 포항지진을 발생시킨 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 수시 · 정시 1주일 연기... 12월12일 성적 통지

교육부, 수능 시행 연기 후속대책... "학사일정 치질없게 만전"

교육부가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주일 연기한 데 이어 대입 일정 조정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후속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수능 연기에 따라 대입전형 일정도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학 입학전형 실시 및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주 주말부터 시행예정이었던 대학별 논술 · 면접 등 수시 모집 일정을 1주일씩 연기한다. 수능 시험 이후의 신청, 정답확정 등 일정 또한 1주일씩 순연할 예정이다. 채점기간은 현재 19일에서 18일로 단축해 12월 12일까지 학생들에게 성적통지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시 일정도 1주일 순연하되 추가모집 일정을 조정해 대학 입학과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진 피해지역 도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17일까지 포항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해 휴업을 결정, 안전점검을 거쳐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재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입시학원, 기숙형 학원에 대해서도 학원총연합회를 통해 수능 연기에 따라 학원을 연장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고3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 내 인근지역의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은 물론 학원, 독서실 등을 무료로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심리적 차유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포항지역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파견하겠다"며 "접근성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화상담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재수생 등이 연기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춘란 차관은 "이번 수능 시행 연기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조치임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연기된 수능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수능시험 연기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 자기계발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문화공보과 권택규 등 6명은 15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자기계발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는 나=가족=직장의 조화로운 균형으로 신개념 직장문화 분위기 조성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면서 경청하여 새로운 변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례 발표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문화공보과 권택규) ▲나는 '리얼탐' (평생학습과 김혜진)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환경과 장원운) ▲이거식의 자기소개서(건설과 이기석) ▲일과 삶의 연결고리, 그것의 발판(용운동 고이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서(관암1동 김현율)란 제목으로 각각 진행되었다.

심사 결과는 관암1동 김현을 최우수상, 용운동 고이래 · 평생학습과 김혜진 주무관이 우수상을 각각 차지했고 우수부서 및 개인에게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우수사례를 더욱 확산시켜 자율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로의 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영호 기자

## 내년도 국비확보 위해 부지사도 '한 몫'

남궁영 행정부지사도 국회 방문... 도 현안사업 증액 건의

남궁영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6일 국회를 찾아 충남도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남궁 부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로 상경, 예결위원장이 백재현 의원과 예결소위 위원인 어기구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및 기재부 관계자를 만나 도내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증액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 부지사는 장

향선 복선전철 예타 통과 및 실시 설계비 50억 원과 옛 도청사 국가매입 80억 등 52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7439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남궁 부지사는 복지 중심 예산편성 분위기 속에서도 SOC 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사업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증액 건의했다.

이번 남궁 부지사의 방문에 이어서는 오는 21일 안희정 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비 확보전에 힘을

보낼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과 추가로 증액돼야 할 사업으로 나눠 충남도 현안사업의 반영 필요성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남은 기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요 증액사업 52건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여의도에 상주 캠프를 꾸리고 국회일정에 맞춰 긴밀히 대응하는 한편,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가 교대로 상경, 국비 확보전에 공을 들이고 있다. 김정환 기자

모든 것을 새롭게  
All New 하이트

대한민국 No.1 셀링 비어  
80년 맥주 제조 노하우  
EXTRA DRINKABILITY  
CHEERS! KOREA

hite PALE LAGER



지역의 재난컨트롤타워 10곳 중 4곳 지진 무방비

박남춘 "상황파악·응급대응 미흡"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 지역은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는 지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세종시 로컬푸드 운동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로컬푸드' 생산물 관련이 16일 준공식을 가졌다. 세종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농민이 1만 5000명(5.4%)에 이르며, 그중 안세종시는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로컬푸드 운동'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 총리 "매뉴얼대로 현장 중심 대처"

"수능 치질없도록 만전...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속 집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큰 원칙만 말하자면 당면 대처는 매뉴얼대로 하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원전과 그 관계 기관들은 상황이 완전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먼저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인 지진피해 상황을 점검한다. 이후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등을 방문해 지진피해 시설물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당면 대처에 관해서는 지지를 넘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런데 "기상청이 여진의 예측, 분석, 관리, 이게 우선 급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국회와 협의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수능 실시 1주일 연기'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으며, 수험생과 가족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업무협약식 및 충남경찰청장 초청강연

한글대 지식재산정보사업단, 기술이전 등 성과주목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좋은 사례"

제63회 백제문화제 성과·2018 올해의 관광도시성공개최 고교 홍보 통해 시민 참여 유도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업무협약식 및 충남경찰청장 초청강연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부 회장, 어머니포순이봉사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이 협력할 업무영역은 범죄예방활동 및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최대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법집행 주수는 우리사회 상호간 신뢰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높여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이라며 "상호간 협력해 성숙한 선진사회 구현과 평화롭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히 총원을 위한 지식재산 교육과 멘토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한글대학교 지식재산정보사업단, 기술이전 등 성과주목 "기업과 상생협력하는 좋은 사례"
한글대학교 지식재산정보사업단장 최준민 교수는 이날 IP사업단의 기술이전 등 성과주목을 받고 있다.

제63회 백제문화제 성과·2018 올해의 관광도시성공개최 고교

홍보 통해 시민 참여 유도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지난 15일 문예회관에서 제63회 백제문화제 성과 및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보고회를 가졌다.

원봉사단체, 백제문화제 임직원, 시민과 공무원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공주대학교 최신 무용단의 백제 미미춤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백제문화제 성과 영상과 2018 올해의 관광도시 홍보영상, 유공자 시상, 백제문화제 성과보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계획 보고,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대하며, "다가오는 2018년에도 유구한 역사와 위대한 문화, 수려한 자연환경과 시민들의 역량이 함께한다면 공주시가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특히, 시는 이날 백제문화제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한 유관기관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업체 및 관계자 등 31명에 대한 감사패와 표창패를 수여해 헌신적인 지원에 대한 고마운 뜻을 전달했다.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042)538-3030 www.dajeontoday.com

김태선 기자

김정환 기자

공주=정성범 기자













• 동 정 •••

2017 충남 환경회의



안희정 충남도지사=17일 오전 11시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리는 '2017 충남 환경회의'에 참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7일 오전 11시 리솜오션캐슬에서 열리는 '2017 충남 환경회의'에 참석.

신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



김지철 충남도교육감=17일 오후 1시에 캠프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2017 고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오후 5시 임해수련원에서 열리는 『신규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에 참석.

최고진 세종시교육감=17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열리는 「세종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

어울림 한마당



최고진 세종시교육감=17일 오전 11시 홍익대학교에서 열리는 「세종시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에 참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



김석환 충청군수=17일 오전 10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실시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유구 자카르드섬유 페스티벌



윤석추 충남도의회의원=17일 오후 5시 유구전통시장에서 2017 유구 자카르드 섬유 페스티벌에 참석.

충남도, 카자흐·우즈벡·말레이 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상담회

할랄 규격인증 획득업체 진출 확대

충남도가 15일 예산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제4차 해외바이어 초청 미니 수출상담회에서 88건 113통해 30만 5000달러의 계약추진 성과를 거뒀다.



홍성군 승마장 최신 교육시설 갖춰 눈길

충남 공무원교육원 연수생 35명 힐링(승마) 과정 실시

최근 승마의 효과가 부각되며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이 충남 도내에서 유일하게 직영으로 승마장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승마장은 지난 2012년(4월) 개장하여 2012년 5,500여명, 2013년 7,000여명, 2014년 8,000여명, 2015년 8,900여명, 2016년 10,200여명이 방문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 10월 교육시설을 신축했다.

이번에 신축된 승마장 교육시설은 지난 6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착공하였으며, 면적 240㎡에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휴게실을 비롯한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지하수 스마트관리 시스템 구축 급물살

충남도, 공공관정 편리하고 효율적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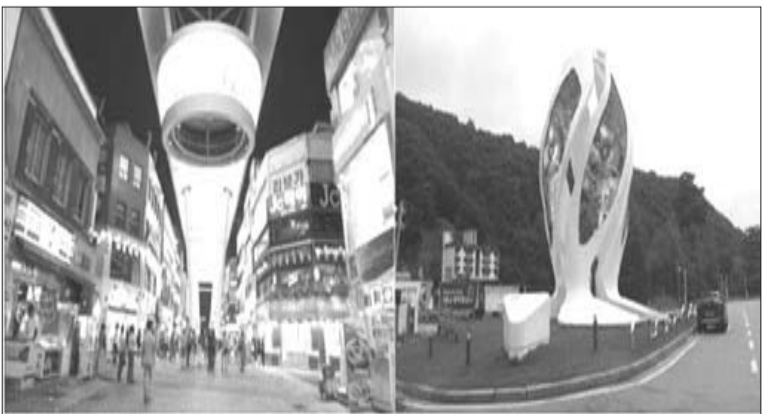
충남도가 스마트폰으로 지하수 공공관정의 모든 정보를 손쉽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1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지하수 담당 공무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하수 스마트관리시스템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련한 '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공공관정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 운영 최종보고회

행복청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디지털 옥외광고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힐링에 있어 탁월한 효과가 있어 교육 과정으로 채택됐다.

교육에 참여한 충남도, 도 직속 기관, 타 지자체 연수생들은 하나같이 힐링의 인프라와 승마장 운영이 놀랍고, 말과의 체험·교감도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군 관계자는 "승마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치유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말하며, 승마 주변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할 뜻을 전했다.

한편, 홍성군 승마장은 일반인·관광객 승마체험, 장애인 재활승마, 학생승마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 전 연령대의 체험객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홍성=김정환기자

사 등 '관리자 모드' 등 3개 분야로 개발 중이다.

도는 이번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하수 정보 실시간 이용 △공공 지하수 시설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지하수 관리 업무능률 향상 △사용자 접근 편의성 증대 △주민 물 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기용 도 물관리정책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스마트폰으로 관정 재원량과 점검 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계획 기간 내 시스템을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광고형태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에 전자빔을 쏘거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식 등을 망라하여, 유형별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행복도시 디지털 광고물의 기본운영원칙과 장소별 운영기준 및 제안 등을 마련해 의의가 있다.

앞으로 행복청은 이번 운영결과가 도시 옥외광고물 기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 현수막 지정제시대의 보완을 위해, 디지털 전자기시대를 보람등 등 세종시청 주변 상가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김명운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디지털광고물 도입을 통해 세종시민의 광고수요를 충족하고 불법광고물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복 기자

폐의약품 분리수거 주민참여 홍보

예산군보건소,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환경오염 예방

예산군보건소는 가정 내 폐의약품에 대한 회수 및 안전한 처리를 위한 폐의약품 분리수거 홍보를 추진한다.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은 효능과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오남용 시 부작용 등 건강을 해치고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하천 등에 무단 투기하면 환경오염 유발 등 인체 및 환경오염의 원인이 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보건소는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도부터 관내 약국, 보건소, 보건지(진료소), 읍면행정복지센터, 군청민원실 등에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 결과 폐의약품 수거율은 2014년(80kg), 2015년(311kg), 2016년(446kg) 매년 증가했고 2017년 10월말까지 331kg을 수거 폐기처리 해 연말이면 작년 못지않은 양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은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을 비치하고, 수거된 폐의약품은 환경에 영향을 없도록 수거해 소각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폐의약품의 관리요령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접수

세종시, "농지 소재지에 기간내 신청서 제출해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12월 6일까지 2018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박 합비료)과 부산물비료 2종(가축 분퇴비, 퇴비), 1포당 유기질비료는 1900원, 부산물비료는 1등급 기준 1600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는 경우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공급받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경영체 변경 및 등록은

관심 'On' 폭력 'Off' 디지털성범죄 'Zero'

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캠페인 실시

충남도는 16일 천안 신부문화관에서 '작은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충남'을 주제로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추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에 맞아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해 마련한 이번 캠페인은 도와 도교육청, 도경찰청, 충남야동·여성안전지역연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은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추방 거리 캠페인과 홍보물 배부, 여성폭력 예방 실천 다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날로 은밀해지고 있는 '몰래 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주변에 원형의 빨간 스티커를 붙여주며, 불법 영

상 촬영 및 유포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예방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추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예산군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예산군은 15일 2017년도 고액 상습체납자 15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 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자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명이 공개됐으며 이들 체납액은 4억 7500만 원에 달한다.

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산군은 자체재원확충과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체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하게 체납세금징수 활동을 펼친다.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미납액은 35억 원으로 이번기간에 40%인 14억 원을 징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일제정리기간에는 자정화되고 있는 고액 고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체납자의 주소와 거주소,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은 물론 은닉재산을 색출하기 위

예산=양성업기자



▲조제약은 1~2주 뒤 폐기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약사와 상담 ▲최소 6개월에 한번은 가정상비약의 유효기간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및 보건기관, 읍면 등 행정기관을 통해 폐의약품 수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홍보활동을 통해 약물 오남용 및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민 참여율을 높여 안전한 의약품 관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양성업기자

동정  
간담회



김홍장 당진시장 =17일 오후 6시 보령문화리조트에서 열리는 당진 영수호씨민대 책위와의 간담회에 참석.

태안군민 원탁토론회



한상기 태안군수 =17일 오후 1시 30분 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태안군민 원탁토론회'에 참석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석화 청양군수 = 17일 오전 9시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총회에 참석.

# 郡鳥인 갈매기 형상화 '안흥나래교' 개통

## 태안군, 사업비 174억 원 투입... 신진도·안흥항 관광발전 기대

태안군 근흥면의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가 될 안흥나래교(사진)가 15일 개통식을 통해 웅장한 모습을 선보였다.

군은 15일 한상기 군수와 이용희 군의장, 각급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흥면 정죽리 안흥나래에서 '안흥나래교'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근흥면 신진도리와 정죽리를 잇는 안흥나래교는 총 연장 293m(시점부~종점부), 교량 보행거리 394m의 2경간 연속아치 인도교로, 총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 2015년 8월 착공해 2017년 10월 31일 최종 준공됐다.

군은 해상인도교명칭 공모를 통해 지난 7월 안흥지역 갈매기의 날개를 뜻하는 '안흥나래교'의 교명을 확정지었다.



안흥나래교는 군조(郡鳥)인 갈매기의 비상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각각 45m와 38m 높이의 두 아치가 아름다운 곡선을 그려내며, 다리에 오르면 탁 트인 서해바다와 신진도 및 안흥항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안흥나래교가 내년 근흥면 신진도에서 개관될 예정인 '서해수중유물 전시관'과 인접해 있어 태안군 해저유물의 관광자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며,태안군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신진도 및 안흥항의 관광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개통식은 근흥물품단의 식전공연에 이어 내빈소개,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축사, 테이프 컷팅, 시설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한상기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과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진 즐거운 축제로 치러졌다.

한상기 군수는 "안흥나래교가 개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주신 관계자들 및 지역 주민분들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미래를 향해 나래를 활짝 펴고 힘차게 비상하는 안흥나래교가 서해안권역의 중심지였던 안흥내항과 지역주민의 희망을 품고 태안의 앞날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우리/동/네

## “당진형 청년정책 청년들의 보약이다”

### 김홍장 시장, 아시아미래포럼서 청년정책 소개

김홍장 당진시장이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 미래포럼에 참석해 당진형 청년정책을 알렸다.

이날 포럼에서 지역 일자리와 사회혁신을 주제로 한 '세션 2.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충남연구원'의 시례발표자로 나선 김 시장은 ▲설자리(제도·기반·참여) ▲일 자리(취·창업) ▲살 자리(주거·보육) ▲놀 자리(문화·커뮤니티) 등 4개 분야에서 추진 중인 31개 특화 시책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설자리 분야 대표 사업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 신설과 청년정책추진단 구성,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비롯해 충남 최초의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복합지원센터인 당진청년센터 설치 등을 꼽았다.

특히 일자리 분야 대표사업인 맞춤형 청년인턴제와 청년창업지원, 민간분야 청년 생활임금제 도입 등 세 가지 시책은 단순 사업 소개에만 그치지 않고 타 지자체와 기관으로 확산이 필요한 정책 사업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그는 살 자리 분야의 아동 돌봄 공공서비스 확대, 방과 후 마을학교와 놀 자리 분야의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당진시 청년문화제 등도 대표적인 청년사업으로 소개했다.

김 시장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곳이라 너무 많고 총체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청년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청년문제는 종합 처방안으로 치료해야 하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보약이 되어 한다"라고 강조했다.

당진=최근수기자

##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준비 본격화

### 당진시, 바티칸 방문해 로마 교황청 참여 건의



당진시와 천주교 대전교구가 오는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심병섭 부시장과 인효식 시의원, 솔빛성지 이용

에게 일일이 약속을 청하기도 했다.

당진시 관계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미리 행사를 준비해 교황청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16일에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회의에도 참석해 행사 일정을 논의하는 등 실무 간 교황청의 행사 참여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대건 신부(세례명 안드레아)는 1821년 8월 21일 당진에서 태어나 1846년 9월 16일 순교했다.

이후 1857년(철종 8년) 교황청에 의해 가정자(可敬者)로 선포되었고 1923년 다시 교황청으로부터 시복(諡福)되어 복자위(福者位)에 올랐으며, 1984년 4월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다시 시성(諡聖)되어 성인 위(聖人位)에 올랐다.

당진=최근수기자



## 청양군 목면 치성천 환경정화활동

청양군 목면(면장 황우원)은 16일 여성자원봉사회와 함께 금강 치성천 주변 도로와 하천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환경정화는 금강변 일대에 방문객(누시)이 증가해 생활폐기물 누적이 급격히 늘어나자 훼손된 경관을 복구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여성자원봉사회 회원들은 금강 치성천 하천일대의 쓰레기를 줍고, 컵더 쓰레기통을 비우는 등 환경정화에 힘써며 수순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황우원 면장은 "쾌적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환경정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꽃줄이 자랑거리인 금강의 경관을 보존코자 폐기를 투기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목면 여성자원봉사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독거노인 밀반찬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에 솔선수범 하고 있다.

청양=정상범기자

## 청양군 김장으로 사랑을 나눠요

### 청양읍·정산면·비봉면,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 실시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이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정산면여성단체협의회(회장 차미숙)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더해 담은 김치만큼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여명은 비가 온 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 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힘을 더했다.

청양읍도 16일과 17일 이틀간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권영철, 김정자)의 주관으로 화당리 농협 육묘장 광장에서 동절기 어려운 가정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담근 김장 김치는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등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새마을 남부지도자 회원 54명이 참여해 총 700포기의 김장을 담근 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의 기구에 전달할 계획이다.

차미숙 협의회장은 "어려운 이



비봉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회장 이동희, 강기자는)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회원과 자원봉사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김장을 담가 신체적·경제적 사유로 등

절기 김장을 하지 못하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가정 70여세대에 전달했다.

청양=정상범 기자



## 태안군 지역발전 이끌 신규공직자 역량강화

### 신규임용 공직자 60명 대상 '신규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태안군이 지난 15일 근흥면 한화호텔&리조트에서 2016~2017 신규임용 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신규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공식 가치관을 확립하고 미래 지역발전이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신규 직원들의 새 출발을 격려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공직자를 육성하기 위해 실무교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태안군의 미래를 열어가길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지원과장이 기획역량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한국어가레크리

레이션협회 이선우 전문위원을 초청해 '행복한 삶을 위한 힐링 웃음'을 주제로 교육에 나서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상기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희망찬 태안, 행복한 군민' 시대 개막을 위한 5대 군정목표를 소개하고 군민 중심 마인드 함양을 위해 필요성을 강조해 신규 공직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실무교육에 참석한 박진희 주무관(33)은 "태안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욕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에 참여한 한상기 군수는 "행복한 태안 시대 개막을 위해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 친절마인드 향상위한 자체교육

### 아산시 도로과, 전화응대방법,방문민원 응대 요령 등

아산시 도로과과장 김효섭은 부서 전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전화응대방법, 방문민원 응대 요령 등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김효섭 과장은 최근 수일간 직원들의 전화응대와 방문민원 응대의 잘못된 점과 미진한 점을 일일이 지적하며 민원의 대부분이 생활불편을 해결해달라는 내용으로 시에서 발간한 전화응대 표준 매뉴얼을 책상위에 부착해 준수하고 방문민원은 사무실 들어서는 단계부터 공손한 인사와 친절한 설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밖에 동절기를 맞아 육교 모래주머니 비치, 자전거대어소 점검, 시설공사 조속한 완료 및 공사 중지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판단, 최종 퇴장자 전열기구 확인, 복무철저 등을 교육한 후 '도로과 파이팅'을 외치며 민원에 감동을 주는 부서가 되자며 다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1회 가격으로 최대한 많이 게재해 드리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전투데이만의 노하우...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9 태도빌딩 7층



**동 정**

유구자카드섬유 페스티벌개막식



오시덕 공주시장은 17일 오후 5시 유구시장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2017 유구 자카드섬유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

성주 나눔 바자회



김동일 보령시장 = 17일 오전 10시 성주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열리는 성주 나눔 바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석.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주재



권혁문 서산시 부시장 = 17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주재.

충남교육장협의회 월례회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 17일 오전 10시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리는 충남교육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종합학습발표회



조민행 보령교육장 = 17일 오후 2시부터 옥계초등학교에서 개최되는 '꿈과 끼를 펼치는 옥계 이야기' 종합학습발표회에 참석.

# 약손마을 종합개발사업 본격화

## 금산군, 9억3000만원 투입 생활기반 확충... 경관개선 등 자생기반 마련

금산 약손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16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북면 상곡리 약손 마을단위(죽말, 배나 무름, 북거리, 지릿말, 하급밭이, 구석말)종합개발사업이 이달부터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경관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사업이 펼쳐진다.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9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2018

# 자연친화적 공설수목장림 조성

## 보령시, 장묘시설 등 4만9447㎡ 갖춰... 내년도 운영예정

보령시는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 및 국토잡식을 최소화해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보존하고, 건전한 장묘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성주면 개화리 산42-1 일원에 공설수목장림을 조성했다. 8억5000여 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공설수목장은 장묘시설(1만 3706㎡), 주차장 및 광장(3199㎡), 조경시설(594㎡), 휴게공간 등 3만 1948㎡ 등 모두 4만 9447㎡로, 400기를 안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공설수목장은 별도의 분분이나 시설 대신 나무 밑에 꽃분을 뿌리거나 합에 넣어 묻는 방식으로, 지난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연장' 개념이 도입되며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외국의 경우 꽃분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묘지 2624기, 봉안당 5780, 가족봉안묘 195기 등 모두 8599기를 수용할 수 있는 모란공원의 분양률이 80%(6834기)로 조만간 가득 찰 것으로 보여, 이번에 조성된 공설수목장으로 4000기, 인근에 추가가 공사 중인 공설 봉안묘으로

1356기까지 확보가 가능해 수용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시는 수목장 조성을 완료했으나, 진입로가 급경사 이용객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고,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평상, 정자, 종합안내관 등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해결, 보령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해 내년도 개장하는데 만전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송수용 산림공원과장은 "친환경 장례방식으로 자연을 보존하고, 분묘로 인한 국토잡식 예방을 위해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미미한 점을 기다리고 최적의 운영방식과 비용을 검토해 이용자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서산시, 양소영 변호사초청 시민아카데미

### 여러 사례 중심 강연 예정



서산시는 오는 21일 시 문화회관에서 법무법인 송인의 대표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에 50회째를 맞은 이번 시민아카데미에서 양 변호사는 '풍요로운 인생을 위한 법률상식'이라는 주제로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에 대해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강연할 예정이다.

양 변호사는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KBS1 TV 아침마당, MBN TV 속풀이쇼 등, TV조선 TV 로법대법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뽐내고 있다. 특히 이날 강연에 앞서 식전행사도 '애플트리'의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타공연도 함께할 예정이다.

서산 시민아카데미는 시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며, 다음 강연은 다음달 12일 재테크 전문가인 고득성 원진회계법인 이사를 초청하고 '돈 걱정 없는 노후 30년 재테크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서산=김정환기자

## 개심사 찾은 관광객들 가을 정취 만끽 서산시 관광객들 발길 이어져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의 상왕산에 위치한 개심사(開心寺)에서 가을 foliage의 정취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버스를 타고 단체로 개심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목격된다. 서산시에 따르면 평일에는 2,000명, 주말이나 휴일에는 5,000명 이상이 찾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통사찰 제38호인 개심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651년에 창건된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개심사를 지나면 서산의 친환경 트레킹코스인 '아리메길'을 걷다 보면 떨어지는 단풍에 마음이 절로 열리게(開心) 된다. 그러다 절 내에 들어서게 되면 아담한 기암배치와 풍경이 어우러

져 관광객의 마음을 고즈넉하니 가라앉히고 세속의 번뇌를 잊게 한다.

이 절에는 다묘양식의 정수로 손꼽히는 대웅전을 비롯해 보물 제 1264호 영산회괘불명화, 보물 제 1619호 목조미타여래좌상 등이 있어 백제문화의 진수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개심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목판 7개가 추가로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묘법연화경 목판 ▲계초심학인문 목판 ▲몽산화상육도보살 목판 ▲도기논변 모자리혹론 목판 ▲예수시왕생탈채의찬요 목판 ▲성관자재 구수육자선정목판 ▲오대진언 목판을 보물 지정 예고 목록에 지난 14일 올렸다.

개심사를 찾은 이선희(37·경기도 남양주시)씨는 "개심사에 오니 고즈넉한 절 분위기에 취해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고 그간 쌓였던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이 든다."며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말했다.

서산=김정환기자



## 탄천면 견동리 경로당 준공식

### 공주시, 만남 통탄소통·화합의쉼터 조성

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15일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천면 견동리 주민들의 쉼터인 견동리 경로당 준공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이번엔 신축한 견동리 경로당은 약 26년 동안 주민들의 쉼터와 모임 장소로 활용돼 온 기존 견동리 노후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서 1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323㎡에 연면적 약8389㎡ 규모로 방2, 주방, 화장실, 회의실 등을 갖춰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축했다.

이번 견동리 준공을 통해 마을 주민들의 소통 창구이자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및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되는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도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깨끗한 마을 이미지

개선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견동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보수해 나갈 계획이 다.

김경천 견동리 이장은 "경로당 준공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오시덕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효율적인 활용으로 주민들이 항상 쉽게 찾아오는 편안한 공간은 물론 만남을 통한 소통과 화합의 쉼터, 도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현대식 전통 가옥 MOD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옛 한국 전통 가옥의 정통과 현대적인 아름다움 더하기.

**1 전통정격**

전통정격의 가옥, 문화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의 편리함과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옥의 정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전통정격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2 완벽**

완벽한 가옥은, 현대적 생활양식에 맞는 모든 기능을 갖추고, 현대의 편리함과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옥의 정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전통정격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3 아름다움**

완벽한 가옥은, '모던' 또는 '전통'이라고, 그 자체 '아름답다' 라는 가치를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가치에서 생기는 아름다움은,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가옥의 정통과 현대의 아름다움을 더하여, 전통정격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Modern Traditional Houses**

BEST PLAN, 대표: 박정호 FAX: 042.624.1204 HP: 010.7472.4972 pjin71456@hanmail.net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TV 하이라이트

달콤한 원수 (SBS 오전 8시20분)



최고식품 매각이 결정되자 담남, 선호, 재욱은 매각을 막기 위해 주주들을 만나 설득하며 의기투합한다. 세나는 동영상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병수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어 돈과 맞교환하기로 해놓고 병수를 죽임 계획을 세운다. 병수는 금숙을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이를 알게 된 담남은 세나와 병수에게 미행을 붙여 현장을 덮치려 하는데...

케이블 영화

인천상륙작전 (17일 COCN 오후 8시30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불과 사흘 만에 서울 함락,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을 빼앗기게 된 대한민국.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리암 니슨)는 모두의 반대 속 인천상륙작전을 계획한다. 성공확률 5000:1, 불가능에 가까운 작전.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단 하나, 인천으로 가는 길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뿐이다. 맥아더의 지시로 대북 첩보작전 'X-RAY'에 투입된 해군 첩보부대 대위 '장학수' (이정재)는 북한군으로 위장 잠입해 인천 내 동태를 살펴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인천 방어사령관 '탑계진' (이범수)에 의해 정체가 발각되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장학수'와 그의 부대원들은 전세를 바꿀 단 한번의 기회, 단 하루의 작전을 위해 인천상륙 함대를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임무에 나서는데...

제4회 공주시장기 공무원 축구대회 개최

정부중앙부처 및 인근지자체 등 9개팀 참여...교류협력의 장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오는 18일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인근 지자체 축구동호회 간 교류를 통해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주시청 축구단이 주최하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후원하는 제4회 공주시장기 공무원축구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국토교통부 등 5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등 4개 인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총 9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심규덕 정책사업과장은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및 인접 지자체 등 기관 간 상호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공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세한대, 중국 길림성 태권도협회와 MOU 체결

세한대학교 태권도학과 국제교류활동 위한 첫 단추 끼워



세한대학교(총장 이순홍) 태권도학과와 중국 길림성 태권도협회(회장 김원지)는 지난 9일 영암캠퍼스 연회관에서 세한대-중국 길림성 태권도협회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날 세한대는 정기영 교학처장을 비롯해 주석희 교학부처장, 태권도학과 최경진 학과장, 김형우, 이용주, 박경호 교수, 재학생들이 참석했다. 또한, 길림성 태권도협회는 김기봉 박사(교관), 원지강 회장, 완건평 부장, 이해봉 부장과 전남 태권도협회 조영기 회장, 기술위원 김중옥 의장, 이용우 부의장, 김창호 위원장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태권도학과의 태권도 시범으로 시작한 환영식에 이어 MOU 체결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단장=최근수기자



법상 차리는 남자 (11일, MBC 오후 8시45분)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소원(박진우)과 연주(서효림)! 태양(은주완)이 캐빈(이재룡)과 함께 일한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화영(이일화)! 화영이 캐빈의 경제력에 유혹당할 상황이 불안한 정도(심형탁)! 한편, 신모(김갑수)에게 지친 영혜(김미숙)는 다시한번 큰 결심을 하는데...

투모로우 (19일 채널CGV 오후 5시00분)

기후학자인 잭 홀 박사는 남극에서 빙하 코어를 탐사하던 중 지구에 이상변화가 일어날 것을 감지하고 얼마 후 국제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하락에 관한 연구발표를 하게 된다. 급격히 지구 온난화로 인해 남극, 북극의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해류의 흐름이 바뀌게 되어 결국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거대한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비웃음만 당하고 상사와의 갈등만 일깨워준다. 작은 상사와의 논쟁으로 쿼츠대회 참가를 위해 뉴욕으로 가는 아들 샘을 데려다 주는 것을 잊어 버리고 만다. 얼마 후 아들이 탄 비행기가 이상 난기류를 겪게 되고 일본에서는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TV를 통해 보도되는 등 지구 곳곳에 이상기후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잭은 해양 온도다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이 예견했던 빙하시대가 곧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게 된다.



순천향대 인문학진흥원

학술대회 개최

순천향대 인문학진흥원(원장 김기승) 교수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아산시 운정동에 위치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관계인문학, 지역의 역사 바로알기-외암 이간선생과 생가터'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초연설과 2편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윤사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문학의 진로라는 주제로 한국 철학의 전통적 자산에 있던 선현들의 성선설과 그 새로운 응용의 길에 대해 강연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 이등 관련 정책제안문 접수** 대전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16일 의정실에서 대한민국이동총회 대전지역 이동권리 의장단(의장 유예림·노은초 6학년)으로부터 정책제안문을 전달 받았다.



**전기인전공사·삼성 봉사단,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인전공사천안안산지사(지사장 안원형)봉사자 20여명은 지난 15일, 삼성디스플레이(상무 신진철) 봉사자 20여명과 연합으로 탕정면 갈산리를 방문해 전기재해예방을 위한 농촌주택 노후 전기설비 개선 및 LED형광등 교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공주대 총동창회,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공주대 총동창회 36회 동문들은 지난 15일 공주대에 대학 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이인호)는 15일 산학협력단에서 대전허브도제지원센터 2017년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의 관계자와 참여기업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2017년도 봉사회 리더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회장 유창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공주 한옥마을과 고마아트센터에서 '2017년 봉사회 리더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는 충남 지역내 대한적십자사 15개 지구봉사회 임원 등 총 70여명이 참가했다.



**청양군 남양면 분회경로당 노인회, 환경정화활동 전개** 청양군 남양면 분회경로당(회장 권오섭)은 지난 15일 남양면 금천리 도로변 일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들은 '깨끗한 남양을 만들기'를 위해 관내 주요 도로에서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 백석대 관광학부 특성화사업단, 대학 특성화사업(CK-1)의 일환 '2017 관광 리쿠르팅 엑스포'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관광학부 특성화사업단은 11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내 분부동에서 대학 특성화사업(CK-1)의 일환으로 '2017 관광 리쿠르팅 엑스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광학부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2014년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았으며, 특별히 올해는 재학생 아이디어 공모로 학부 재학생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 실행해 교육적인 효과까지 거뒀었다.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참여도 또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업채용면접 ▲가족기업홍보존 ▲자기소개서 컨설팅



▲똑똑똑 JOB아라 ▲여행힐링콘서트 특무유 ▲스피치마스터 ▲취업 레디 존 ▲관광기업분석경진대회 기업철전 등이다. 올해 행사에는 (주)모두투어, (주)그랜드코리아레저, (주)레드컴퓨터, (주)세종여행, 오프너디오씨주식회사, (주)힐튼호텔, (주)호텔켄싱턴 등 3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 상담,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김정환기자

는 관광경영학전공 이우진 주임교수는 "이번 관광리쿠르팅엑스포는 1, 2학년들에게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3, 4학년들에게는 취업 준비 역량 배양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특별히 졸업 앞둔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내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석대 관광학부는 2014년 교육부 특성화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관광분야 대형 특성화사업에 선정됐으며, 2019년 2월까지 국고 지원을 받는다. 더불어 2016년도 중간평가에서 우수 특성화사업단, 2017년도 연차평가에서는 중점권 대학 중 2위에 선정됐다.

**● 동정 ●**

**가족골든벨 행사**



김진수 새마을문고총청남도지부회장 = 18일 오전 11시 30분 시군군회회장회의를 주관, 이어 오후 1시 서산성연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가족골든벨 행사에 참석 격려.

**농협은행 유천동, 대표통장 및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




### 금강대, 제6대 이준원 총장 취임식

금강대학교 제6대 이준원 총장의 취임식이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원각도서관 1층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는 변춘광 학교법인 이사(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김도원(대한불교 천태종 종의회 의장), 김무원(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 주지), 학교법인 사무처장 이원장(대한불교 천태종 규정부장), 한일고등학교 교감 신인수, 교수 및 직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준원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강대학교가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자리매김 했다. 하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가 왔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불교문화 진흥에 역점 ▲소수정예 강소대학의 육성 지속 추진 ▲대학 역량 강화 ▲대학 위상 재정립 ▲대학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세한대, 한·중 교류 위한 학술세미나

세한대학교(총장 이승훈)는 지난 15일 당진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공자아카데미가 공동주관으로 중국 청도대학을 초청해 학술세미나와 학생 문화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세한대 이승훈 총장을 비롯해 남궁승태 교학처장, 최미순 기획평가 처장, 손다욱 외사처장, 강창구 공자아카데미 당진분원장, 세한대 구성원과 중국 청도대학 의수길 부서기, 이열 원장, 총홍근 주임, 육철 원장, 우홍과 주임, 청도대학 교수 등 28여 명이 참석했다.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총 18회 618명 대상 소외계층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 운영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소장 양해승)는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과 함께 떠나는 생태관광을 총 18회 618명 대상으로 운영했다.

자연체험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생태우수지역을 탐방하고 인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생태나누리와 아토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환아나 부모 대상으로 하는 건강나누리를 무료로 운영했다.

### 바로세움병원·대전복합터미널 양기관의 발전 위해 지정병원협약



대전바로세움병원과 대전복합터미널은 지난 15일 오후 6시 복합터미널 보정홀에서 양기관의 발전을 위해 지정병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바로세움병원에서 황인석 병원장, 김경훈 부원장, 차영덕 행정고문, 김준표 행정원장, 조요한 홍보이사, 양희영 원무부장이 대전복합터미널에서는 이만희 회장, 부재원 사장, 강병규 사장, 윤영식 부사장, 주재환 상무, 조대운 재정팀장, 이승화 인사팀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고령이나 젊은 층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이 날로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농협은행이 고객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NH농협은행 유천동지점 직원들은 지난 15일 오후 5시 최근 대전시 중구 유천동 일대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대표통장 및 보이스피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통장 발급 방안 안내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안내를 받은 고객들은 본인이 경험한 보이스피싱의 예를 들며 이번 캠페인 활동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대덕대 김일진 교수,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장상 수상**



대덕대학교(총장 김상인) 해양연구소장인 김일진(사진) 교수가 올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회가 주관한 '2017년 전국 교수학습연구대회'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김 교수가 '전자전공 입문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플립드러닝 기반의 STORE 교수학습 모형 개발 및 적용' 주제로 단독 출품한 교수법이 우수교수학습 사례로 선정된 것이다.

본 STORE 모형은 Search(1단계), Team/group learning(2단계)을 거치고, Oral presentation(3단계), Reinforcement learning(4단계) 및 Evaluation & Reflection(5단계) 학습과정인 플립드러닝 기반의 교수법 모형으로써 실무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 향상과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모형으로 평가됐다.

특히 해당 교수법은 상호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어려운 공학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를 높였고, 현장적용 기여도와 총결산, 창의성과 적절성, 수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으며 '잘 가르치는 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의 위상도 한층 높였다.

대전바로세움병원과 대전복합터미널 직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황인석 병원장은 "대전복합터미널의 직원 및 가족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양기관의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만희 회장은 "적극, 연결 병원으로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을 맺게 되어 직원 및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 학교폭력예방 선서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하나.** 우리는 학교폭력을 당하는 친구를 보면 망설이지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 하나.** 우리는 올바른 정신과 건강한 몸을 통해 학교폭력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